

광주·전남 여행업계 '내란 사태 불똥'

“안전 못미어” 외국인 여행객 예약 취소·축소 잇따라 정국 불안정 장기화 땀 업계 뿌리째 흔들릴까 걱정

12·3 비상계엄 여파로 광주·전남 여행업계가 위축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한국이 여행 위협국가로 지정돼 광주·전남 방문을 앞둔 외국인 여행객들의 예약이 취소·축소 되고 있다.
18일 광주·전남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여행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외국인 여행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비상계엄 소식이 외국에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여행을 앞뒀던 외국인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여행을 미루거나 취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여행상품을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인 A사도 수천만원의 피해를 봤다. A사는 광주관광공사가 선정한 업체이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의 안전을 믿지 못해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국인 대학생 20명과 광주비엔날레 패션쇼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카자흐스탄 참가팀 1곳이 계약을 취소했다.
A업체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한국 상황이 너무 위험한 것 같더라 철회했다”면서 “여행사에서 마네킹과 진열대, 모델 섭외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출국 직

전에 패션쇼 참가를 포기해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있는 광주남해관광에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여행을 앞둔 외국인 여행객들의 문의전화와 빗발치고 있다.
일본의 BTS(방탄소년단) 팬들은 지난 10일 한국 입국에 앞서 “한국은 지금 안전한 상황이나”며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여행사 관계자가 “안심해도 된다”고 몇번을 되풀이 해서 당부하고서야 이들은 한국 땅에 발을 디뎠다.
하태군 광주남해관광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외국인 관광객이 끊겨 폐업위기에까지 갔을 만큼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적지 않다”며 “최근 무안공항 신규 취항과 여행사 상품 개발 등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지만 계엄 선포 이후에는 2월 서울 패키지 여행 예약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여행사 측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은 안전한 상황이니 안심하고 여행하시라’는 공문을 보여 주면서까지 설득했지만 여행객들의 공포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여행사 관계자는 “12월은 비수기라 계약 한 건이 아쉬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면서 “내년 3월 중 한국을 찾기로 한 여행객들도 계속해서 한국의 안위를 물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여행업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 19 당시 여행사 무더기 폐업 사태에서 겨우 살아남았으나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면 버틸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정현 오리는 플래닛 대표는 “비수기라 당장의 손해는 크지 않지만 내년 초 여행 상품 설계 논의 자체

가 중단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숨을 쉬었다.
중국·일본·태국 등의 업체와 내년도 개최될 예정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대인시장 남도달밤야시장 관광상품 개발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계엄 선포 이후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은 사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논의 자체가 미뤄지면서 수개월 간 여행상품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 악화로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라도 유치해야 하는데 계엄과 탄핵 여파로 이마저도 어려울 것 같아 업계 내에서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 시국을 겨우 버틴 업체들이 이번 위기로 뿌리째 흔들릴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2025학년도 정시모집 상담 받으세요. 광주시교육청 내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시 원서접수와 관련한 1대1 집중상담을 하고 있다. 23일까지 진행되는 상담은 광주진학부장협의회·광주진로진학지원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진로진학지원단 활동 교사 등 현직교사 22명이 맡는다. /김진수 기자 jeans@

“5·18 무장폭동설’ 악의적 부각 우려’ 옛 전남도청 ‘5·18 총기 체험’ 없앤다

복원추진단, 국가폭력 내용 추가해 시민군 항쟁 부각키로

원형 복원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5·18 당시 총기 체험’ 전시 콘텐츠가 바뀐다.
해당 전시가 5·18 왜곡·편향 세력이 ‘5·18 무장폭동설’을 악의적으로 부각하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11월 21일자 광주일보 6면)에 따른 조치로, 총기 전시 대신 국가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해 시민군의 항쟁 정신을 부각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복원추진단)은 18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전시 콘텐츠 시민설명회’를 열고 “지난 9월 전시안 공개설명회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일부 전시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전시안에는 도청 본관 3층 상향실에는 당초 계엄군과 시민군의 총기 실물을 전시하고 시민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청 별관 2층에는 ‘언론 검열관실’을 추가하기

로 했다. 광주·전남언론인회로부터 민주주의를 짓밟은 언론 통제의 현상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언론 검열관실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다.
다만 1980년 당시 실제 언론검열관실이 설치돼 있었던 위치에는 현재 아시아문화전당 출입구가 설치돼 있어 원형 복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복원추진단은 도청 별관 2층 끝 방에 보도검열관실 위치를 알려주는 팻말을 설치하고 일부 보도 검열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보도 검열 관련 내용은 윤상원 열사의 외신 기자회견이 이뤄졌던 도청 본관 2층 내부국장·새마을상황실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복원추진단은 최근 각 건물의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던 증거 사진을 확보함에 따라 현판도 복원 설치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본격 돌입

한수원, 운영변경허가서 제출 시민단체 ‘탄핵 정국 기습 실행’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18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서(허가서)가 지난 13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1,2호기는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각각 수명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허가서 제출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

안 지자체 공람과 주민 공람, 주민 공청회의 바로 다음 단계다.
지난 10월 29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열린 장성과 부안지역 주민공청회를 끝으로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6곳(영광, 함평, 장성, 무안, 부안, 고창)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 됐다.
수명연장 절차는 한수원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 및 이사회 의결→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PSR 심사→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설비개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총 3~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한빛원전의 경우 PSR심사와 운영변경허

가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고리원전 등의 사례를 보면 심사는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는 ‘한수원이 탄핵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운영변경허가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수차례 한수원에 수명연장의 부당성을 제기했으나, 이를 운영변경허가서에 반영하고 심사숙고했는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이와 관련, 19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 ‘5·18 왜곡’ 고발 당해

5·18기념재단이 ‘북한군 투입설’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했다며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18일 정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북한 출신 영화감독이다.
고발장에는 정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 ‘정성산 TV’에 “5·18민주화운동은 김일성의 명령을 받은 북한 특수군과 남한의 인민들이 일으킨 무장봉기·폭동이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5·18기념재단은 정씨가 2019년 5월 18일부터 2024년 9월 22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5·18은 김일성의 정서에 입각한 인민 무장봉기다’, ‘5·18에 북한특수군이 침투했다’, ‘5·18유공자에는 가짜가 많다’는 등 5·18 관련 허위주장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고도 주장했다.
5·18기념재단 측은 “5·18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행위였고, 이를 폭압적으로 진압한 행위는 국헌문란 행위였다”며 “5·18 북한개입설은 그동안 법원과 국정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허위임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애고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숙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